

# 박영희의 문학비평 연구

金 時 泰\*

## <目 次>

- |                            |                 |
|----------------------------|-----------------|
| 1. 머리말                     | 한계              |
| 2. 문학활동의 궤적                | 4. 후기 비평        |
| 3. 초기 비평                   | 1) 프르문학 건항론의 배경 |
| 1) 마르크스주의의 선택과 기<br>성문단 비관 | 2) 카프탈퇴 이후의 문학론 |
| 2) 목적의식론의 논기와 그            | 5. 결 론          |

## 1. 머 리 말

懷月 朴英熙는 시, 소설, 비평 등 여러 장르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보였으나, 그의 본령은 비평일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비평 장르에 국한하여 그의 문학체질과 업적 및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의 문학적 편력을 더듬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한 때는 유태주의 시인으로서 “예술을 위한 예술”의 입장을 고수했고, 프랑스 상징주의 시에 심취했는가 하면, 또 한때는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발을 붙이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전향선언을 발표, 카프조직을 탈퇴했으며, 이윽고 “국책문학”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그의 문학적 편력은 한 마디로 말해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겉으로 나타난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그러한 판단이 나올 수 있겠으나, 이는 자칫하다가 피상적 관찰의 한계에 머물 가능성이 짙다.

회월의 문학과 생애를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그 배후에 숨은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회월에 대한 연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아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부교수

직도 많은 숙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전기적 자료들을 면밀히 고찰하고, 그것들이 그의 문학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문학이 그 원천을 이루는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사회·문화 조건들과 대비시켜 볼 때 어떠한 의의를 부여받게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회월의 문학유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한낱 선행작업으로 그의 문학적 궤적을 더듬어보고, 그의 비평이 각 시기의 사회자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문학활동의 궤적

회월의 문학활동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그 첫번째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백조》동인 시절의 유미주의 시이고, 그 두번째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비평과 소설, 그리고 그 세번째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카프 탈퇴 이후의 계빈 문학활동이다.

이 3단계의 전신과정을 통해 우리는 격동기 사회에서 겪은 한 지식인의 정신적 고뇌와 갈등을 엿볼 수 있다. 회월의 경우, 이러한 굴절의 피장이 누구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자기 시대의 현상에 대해 누구보다 정직하게 맞서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는 왜 이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정신적 유형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이 물음에 접근하기 위해, 위에서 지적한 3단계의 전신과정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백조파 시인으로서 처음에는 유미주의적 문학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문단동향에 비추어 볼 때, 이 문학관은 어느 정도 새롭고 독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회월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이러한 문학관의 선택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 시기 젊은이들이 대체로 그랬던 바와 같이 자신의 지식욕을 충족시킬 수 있으리리 믿었을 것이다. 당시의 문헌들을 더듬어보면, 그는 프랑스 상징시의 쿿노래에 도취되어 골방에서 나을 줄 몰랐다고 한다.<sup>1)</sup> 이 한

1) “회월 박영희씨는 자기 집 건너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베를레즈의 시를 고성낭독하느라고 아편중독자처럼 정신이 몽롱하다는데”(《개벽》 31호 p. 43)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무렵 그는 유태주의 시 세계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고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문학과 삶의 관련 양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기에 제작된 그의 초기 시작품을 읽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참고 삼아, 그 1절을 여기에 인용해 보이면,

나는 날마다 힘센 白色의 巨人과 같이  
 바람 몹시 불고 햇빛 잘 쪼이는  
 모래밭 위에 光採나는 黃金塔을  
 날마다 몇 개씩 세워 놓도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운 탑들은  
 헤일 수 없이 섰었던마는  
 때 맞춰 들어오는 쿠른 潮水에  
 모래와 한가지 휩쓸려 갔도다.  
 그중 끝으로는 어린 黃金塔을 세우고  
 그 위에는 머리에 花冠을 써운 愛人을  
 어여쁘게 앉히고 나는 기도하기를  
 이 黃金塔 위에 愛人이여!  
 이 世上이 다 어둡더라도  
 우리의 黃金塔의 光彩는 길이 있을지어다.<sup>2)</sup>

화자는 일상적 현실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에서 예술적 환상과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이 시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군으로서 “虛華市”나 “黃金塔”이니 하는 낱말들은 낭만적 환상의 꿈을 상징한다. 일기적 현실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시인의 의지와 발상법은 현실에 대한 소극적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시인은 현실의 세계에서 자아의 진실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진실을 고수하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 타락한 현실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더욱 더 멀리 떨어져 나아가려는 충동을 깨닫게 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폐쇄된 사회에서 상상력의 힘을 빌어 삶의 공간을 확대하려는 인간의 기본 욕구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세계인식 태도는 1920년대 시인들로 하여금 낭만적 유태주의 문학관을 택하게 한 중대한 요인의 하

2) 박영희, 〈幻影의 黃金塔〉(《백조》 창간호, p. 52)

나가 되었을 것이다. 회월의 초기시는 이러한 시대의 고통을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월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감염되면서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백조》동인이 붕괴되고 《파스쿠라》동인이 새로 조직된 1923년 후반기의 이 변화는 그의 인생관 및 세계관과 문학적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어놓은 셈이 되었다.

회월이 좌경화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프로문학의 씨를 뿌리기 위해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金基顯의 자극이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고, 3·1운동 이후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급진적 투쟁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 이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가 간접적 동기를 이루었을 것이다. 훗날, 회월은 김기진의 영향이 컸다고 회고한 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그의 전향동기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급속한 전파능력을 보이게 된 이 시대의 닫힌 상황이 당시의 젊은이들을 급진적 투쟁이론으로 무장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회월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의식·무의식적으로 끌려들어 갔을 것이리라 봄이 타당할 듯하다.

그는 과거의 유희주의 문학을 ‘도피적 문학’이라 규정하고 “생활을 떠난 문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매도했다.<sup>3)</sup> 그런데, 이러한 전신과정은 비단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의 동시대의 문인들이 일인적으로 선택한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1920년대의 초창기 문단에서는 “예술을 위한 예술”과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두 개의 슬로건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문학이 어떤 형태로든 감수성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등장한 젊은 예술주의자들은 이러한 자각과 실천 아래 “인생”의 의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훗날 민족주의를 선택했건 계급주의를 선택했건간에 근본적으로 동일한 코오스를 밟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자 이광수와 계급주의자 회월은 이데올로기의 상이를 떠나 유사점을 많이 공유하고 있었다. 초기 예술파 문인들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취한 태도를

3) 박영희, 〈고민문학의 길연성〉(《개벽》 1925. 7, p. 64)

비교해 보면 양자의 유사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① 신문에는 조선 청년 남녀에게 일면으로 인생에 대한 신자각과 신해석, 조선에 대한 민족적 의식을 주고, 다 일면으로는 남구식 향락탐욕의 해독을 주었다. . . 조선은 지금 은둔적·도취적·염세적인 것보다 사상으로나 정조로나 진취적·노력적·군가적인 현실긍정의 사상과 정조가 인심을 지배하기를 요구하는 시기에 있단 말이다. 이 의미로 나는 세기말 예술을 저주하고, 조선인의 희망과 자신과 용기를 노래하는, 말하자면 신이상주의적 예술을 요구한다는 말이다.<sup>4)</sup>

② 현금 20세기까지 발전하여 온 예술을 2대분파로 구분하여서, 하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요, 하나는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고 한다. 즉, 전자는 예술에 대한 미의 발전만을 창조함에 있으며, 후자는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어떠한 적극적인 생존과정에서 새로운 인상을 예술이라는 미의 수단을 거쳐 창조하는 것이니, 하나는 미의 향락이요, 하나는 인생생활의 이상이다. 이럼으로써 예술을 위한 예술을 창조하는 자들은 생활의 이상을 오직 미를 향락하는 데서 탐구하려 하며 생활을 위한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으니, 전자는 유희적·향락적·개인적이요, 후자는 건설적·창조적·집단적이랄 것이다.<sup>5)</sup>

①은 이광수의 인용이고, ②는 회월의 인용이다. 양자가 다 유태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삶의 문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포우즈를 취하고 있다. 다만 그들은 예술적 저항방식과 투쟁노선을 어디서 찾느냐는 김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광수 비판으로 작성된 회월의 평론 <문예쇄담을 읽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우리 나라 근대문학은 대중 개념의 파악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럼 점에서도 양자는 유사한 사고 패턴을 견지하고 있다.

조선의 문학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격도 다른 처지에 있다. 그 까닭은 조선 민중의 생활이 그러한 처지에 있는 까닭이다. 그 처지는 군도 잘 알티지만 그때도 오해를 걱정해서 나는 한 마디로써 말하겠다. 그것은 현금 상태에 있는 조선, 혹은 민중의 소극적 생활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데서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든지 그 처지가 무산적 조선을 주관에서 강렬케 하여 가지고 민중의 부르짖고 싶은 생활의 진리를 부르짖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문학은 그 시대, 그 민중의 환경과 처지를 주관적으로 고열케 해서 그들의 진리를 표현하여 주며 인도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고로, 문학은 민중의 사상을 대표하며,

4) 이광수, <문예쇄담>《동아일보》1925. 11. 5~6)

5) 박영희, <신흥예술의 이론적 근거를 논하여 염삼섭군의 부지를 박함>《조선일보》1926. 2. 3.)

생활의 기대를 표시하는 것이니, 어느 때에는 선진포스티르까지 변하는 것이다.<sup>6)</sup>

일끼기 춘원은 민중예술의 의의를 강조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민중예술은… 무식하고 빈궁한 조신 민중이 골고루 향락할 예술”이라 보고, 민중문학의 성립조건을 1) 민중의 언어로 2) 민중 생활을 묘사하되, 3) 민중의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여기서, 춘원이 생각하고 있는 범민족적 민중 개념을 “무산적 조선”으로 대치시킨다면, 그것은 회월의 민중 개념과 유사한 것이 될 것이다. 적어도 문학을 삶의 한 양식으로 보고, 그 가치를 삶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보려는 역사주의적 관점에 있어서만은 그러하다.

회월의 초기 비평은 이러한 역사적 문맥 속에 놓여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초기 비평에는 “예술”과 “인생”(즉 계급)을 통합하려는 종합적 의지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가 내한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는 예술을 사상하고 계급관념만을 강조함으로써 제 2의 분열상태를 조장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그로 하여금 견고한 사상의 벼속에 감금되어 예술적 감수성이 마비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초기 프로문학운동의 지도자로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온 그가 결국 카프를 떠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전향논리는 우리 문학의 전체적 흐름속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모든 문인들의 공통 관심사를 대변했던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백조》에서 《카프》로 자리를 옮겼으나, 거기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 경처없는 유형의 길을 떠나야 했던 그의 문학적 체제는 우리 문학사의 한 단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프 탈퇴 이후에도, 그는 주로 이 문제에 부딪혔다. 즉, “예술”과 “인생”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지는 못했으나, 우리 시대의 문학적 과제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명확히 제시했다. <문학의 이론과 실제>(1947)는 이런 김에서 주목할만한 업적을 남긴 셈이다. 이 논문은 한 시대의 문학 현상을 관찰하고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어느 현장 비평가의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6) 박영희, <“문예쇄담”을 읽고서>(《개벽》 65호)

### 3. 초기 비평

#### 1) 마르크스주의의 선택과 기성문단 비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월은 1923년 가을 《백조》동인의 붕괴와 때를 같이하여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감염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상 변화에 힘입어 새로운 문학관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첫평론 〈체홉 회곡에 나타난 노서아 환멸기의 고통〉(《개벽》 44호)을 비롯하여 〈자연주의에서 신이상주의에 기울어지려는 조선 문단의 최근 경향〉(동), 〈문학상으로 본 이광수〉(《개벽》 55호), 〈고민문학의 필연성〉(《개벽》 61호), 〈문단의 투쟁적 가치〉(《조선일보》 1925.8.1~4), 〈신경향파의 문학과 그 문단지 지위〉(《개벽》 64호) 등은 김기진의 초기 비평 문장들과 함께 우리 나라 프로문학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주목된다.

회월은 당시의 한국 사회가 혁명 전야의 러시아 사회와 같이 극도의 경제적 궁핍화와 정치적 제약 조건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상운동을 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마르크스주의였다. 이와 같은 사상 전환은 백조파 동인으로서 유희주의적 문학관을 소지했던 그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자기성찰에 값하는 것이었다. 상계 평론 〈체홉 회곡에 나타난 노서아 환멸기의 고통〉과 〈자연주의에서 신이상주의에 기울어지려는 조선 문단의 최근 경향〉은 그의 초기 비평 문장들로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아직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이 시기에 나타난 그의 정신적 변화과정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문학적 구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앞 글은 제정 러시아 시대의 작가인 체홉의 경우를 예로 들어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그 시대적 의의를 강조한 것이고, 뒷 글은 그러한 문학 경향이 이 무렵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상 두 편의 글에 나타난 그의 주장상을 요약해 보면, 문학이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문학을 창조하는 것<sup>7)</sup>이므로, 문학이 사회를 창조한다는 종래의 유희주의적 관

7) 박영희, 〈자연주의에서 신이상주의에 기울어지려는 조선문단의 최근경향〉(《개벽》 44호, p.96)

점을 지양하고 문학 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회 배경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성문단에 대한 그의 첫번째 비판 항목이다.

한편, 그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계급분화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고, 문학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그의 전투적 계급문학론이 제기되었다.

〈고민문학의 필연성〉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고민기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민기에서 우리의 문학을 건설 하려 한다. 이에서 우리의 문학은 고민기에 있는 생활을 등한히 보게 되어서는 그 문학적 가치가 상실되고마는 것이다. 우리의 문학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게 된다 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원인하는 고민의 문학일 것이다.<sup>8)</sup>

그는 식민지시대의 한국 사회가 정치적·경제적 파산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나 극복의 의지와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제한 다음, 이러한 시대 즉 고민기의 문학은 소극적으로 현실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을 탐구하고 개조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민기에 있는 문학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① 고민기에는 읍음 이외에는 임혹뿐이다.
- ② 읍음은 곧 회의로 변하고, 암혹은 곧 모든 것을 부정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광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까닭이다. 광명이 없는 것을 시인할 수 없는 까닭이다.
- ③ 그러므로, 이 회의와 부경의 적극적 활동은 암혹을 파괴하는 것이며, 소극적 활동은 비판하고 호규하는 것이다
- ④ 적극적 활동은 사회 생활을 진회케 하며, 소극적 활동은 사회 생활의 진화를 상하게 한다.
- ⑤ 문학은 사회적 생활을 원인으로 한 그 시대의 이상인교로 문학운동의 가치 문제는 이 적극적 활동에 원인한다.<sup>9)</sup>

문학의 본질과 그 기능을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해명하고자 한 회월의 이러한 관점은 다분히 마르크스주의 문학관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의 계급투쟁론을 보면 곧 알 수 있다. 그는 사회적 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계급투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계급문학운동은 이러한 계급투쟁 의식을 고취하고 구현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투

8) 박영희, 〈고민문학의 권연성〉(《개벽》 1925.7 p. 64)

9) Ibid., pp. 64~65.

쟁관계에서 볼 때, 종래의 민족주의 문학은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므로 무산계급 문학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다고 했다. 그의 주장을 빌면, 무산계급의 해방운동에 봉사하는 프로문단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문단과 당연히 투쟁할 것”이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단은 압박당하고 착취당하는 민중의 생활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까닭”이라고 한다. 이것이 기성문단에 대한 그의 두번째 비판 항목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회월은 예술과 문인들과 민족과 문인들로 구성된 기성문단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그런데, 그가 주요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민족문학측이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양상을 드러낸 당대의 문단동향에 비추어 보면 불가피한 것이었다.

## 2) 목적의식론의 논거와 그 한계

카프 결성 이후 약 2,3년 동안의 그의 비평활동은 초기 프로문학운동의 지도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준 셈이 된다. 비평태도 논의에서 목적의식론에 이르는 1927년의 그의 비평활동이 그 어느 때의 것보다도 특히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먼저 비평태도 논의부터 보기로 하자.

회월의 평문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의 태도>(《조선지광》 63호)는 프로문학비평의 양식과 그 기능을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그는 이 글에서 靑野季吉의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을 빌어 프로문학비평과 부르조아 문학비평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부르조아 문예비평가는 작품의 구조에 중요한 착점을 두었다. 그러나 프로 문예비평가는 작품에 나타나는 의식과 사회적 ××× 배조하여 프로 작품의 가치를 말해야 할 것이다.<sup>10)</sup>

이것은 프로 비평가로서 한번은 거쳐야 할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김기진을 부르조아 비평가로 규정하고, 내재적 비평방법에 따라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조화 정도를 운위하는 김기진이야말로 부르조아적 문학관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 비난했다. 이 글은 김기진이 “소

10) 박영희,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의 태도>(《조선지광》 1927. 1.)

박영희, 《소설·평론집》(민중서원, 1930), p. 65.

설이란 한 개의 건축”이라는 언어건축설을 내세워 회월의 소설 <지옥순례>와 <철야>를 비판한 데 대한 반론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당시의 문단 동향으로 비추어 보아 러시아적 경동성을 강조한 회월의 쪽이 김기진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하겠다. 이 논의가 제기된 1927년 경부터 休和 등 소강국좌파 문인들이 동경·유학을 마치고 속속 귀국하기 시작했으며, 극단적 투쟁의식을 지닌 그들은 한결같이 회월의 편에 서서 김기진의 굴복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 비평대도 논의에서 우위를 차지한 회월은 그 당시 일본 프로문단에서 논의된 목적의식론을 끌어들여 한국에 있어서도 자연생장기의 프로문학에서 목적의식기의 프로문학으로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참고 삼아, 그 한 대목을 여기에 인용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원래 계급문학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계급의식을 고양하던 계급문학은 경제투쟁에서 목적의식으로(정치적 의미에서) 이르게 되는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는 자연생장적 문학에서 목적의식적 문학으로 과정한다는 것이 지금 필연한 현실이다.<sup>11)</sup>

그의 주장을 빌면, 사회적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하는 것이며 이 변화는 곧 프로페타리아 계급의 진보적 성장,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로문학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진보과정에 발맞추어 “늘 성장하는 현실성을 가져야 될 것”<sup>12)</sup>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연생장기에서 목적의식기로 이행되는 계급의 현실(사회 조건)과 문학운동의 변증법적 교호관계를 강조한 대목으로 주목된다.

아마도 여기까지가 그의 프로문학활동의 전성기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는 이 이후 계속해서 임화 등 후기 카프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초기 카프 지도자로서 후기 카프 지도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질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그는 프로문학운동의 지도자로서 계급의식을 강조하고 문학을 계급투쟁의 도구로 삼고자 했으나, 그의 내부에는 아직도 부분적으로나마 예술적 자의식과 민족적 관념이

11) Ibid., p. 92.

12) Ibid.

잔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훗날 임화 등으로부터 부르조아적 근성을 칭찬하지 못한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라 비판받은 요소들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목적의식론은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방향전환이니 목적의식이니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문학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정치투쟁은 대중이 하는 것이지 문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치의 영역과 문학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론적 관점은 “목적의식의 문예가로서 파악해야 할 태도는 작품을 쓰지 않아야 한다”든가 “작품 행동은 대중을 건무산계급적 정치투쟁에까지 동원하는 매개체로서의 예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소장극좌파 문인들의 목적의식론과는 현격한 상거를 보이고 있다.

또한, 회월은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자 그 간부직을 맡는 한편, 카프를 신간회 산하에 두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결단은 아직 그의 내부에 민족주의적 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는 임화 등 소장극좌파 문인들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들 관념주의자들은 그 소위 국제주의 노선에 따라 민족적 지역적 특성마저 완전히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장극좌파 문인들이 그 동안 회월 소론을 지지한 것은 어디까지나 팔봉에 대한 상대적 평가에서 나온 것이며, 그의 방향전환론을 근본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훗날, 윤기정은 李北滿의 평론 〈예술운동의 방향전환론은 과연 진정한 방향전환론이었던가〉(《예술운동》 창간호)를 개관, 소개하는 자리에서 회월 등 초기 카프 지도자들을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박영희씨의 논문과 김기진씨의 논문 등이 ……거개 이론투쟁에만 그쳤고 실천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실과하였다. 과연 실천적 행위에 있어서는 소리칠 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sup>13)</sup>

13) 이복만, 〈방향전환론〉(《조선일보》 1927. 10. 11)

## 4. 후기 비평

## 1) 프로문학 전향론의 배경

회월은 소장파 불세비키들이 서서히 카프 지도부를 장악함에 따라 조직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전향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전향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1929년 이후부터 나는 나의 카프에 관한 소위 지도이론에 약간의 회의를 갖기 시작하다가 동 31년 동아일보 신년호에 “예술운동의 작금”이라고 제한 논문을 발표하였던 바 권완씨에게 우익적 福田博士式이라는 불맹드를 찍힌 후에 뒤를 이어서 무수한 논객에게 일제사격을 받았다. 철학 속으로 도피하였느니 혹은 무기력하니 우익적이니 인텔리회하느니 소부르조아니 하는 온갖 형용사로……그러다가 동 31년중에는 간부를 사임하고 이래 2,3년 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잠기었다가 33년 10월 드디어 카프를 탈퇴하였다.<sup>14)</sup>

여기서 1929년이라 함은 임화, 안막, 한효, 김남천 등 동격에서 귀국한 소장파좌파 문인들이 전면적으로 진출하여 카프 지도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된 때를 가리킨다. 회월은 이 때부터 카프 지도부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었으며, 그후 3, 4년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마르크스주의 사상 및 예술 전반에 대한 원론적 탐구에 몰두하게 된 것 같다. 이를테면, <예술이란 무엇인가>(<조선문예> 2호), <메시아 사상의 사회 경제적 기초>(<조선지광> 83호), <관념 형태의 현실적 토대>(동 88호), <유물론고>(<대조> 1권 7호), <자본론 입문>(<조선지광> 94호), <스피노자의 철학과 현대유물론>(<신계단> 2호) 등이 그것이다.

카프 결성 후 여러해 동안 프로 문학운동을 이끌어온 이론적·실천적 지도자로서 그는 물론 신흥세력의 도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항의를 제출한 바 있으나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조직에 몸을 담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위와 같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가 오히려 집단공격의 세례를 받게 된 <예술운동의 작금>에 이어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동아일보> 1934.1.2~11)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글은 저널리즘의 힘을

14) 박영희,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동아일보> 1934.1.2)

빌어 모든 사람 앞에 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일종의 전향선언문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카프 조직의 이원구조와 그 갈등이라는 현실적 조건 때문에 카프를 떠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로서 프로문학의 성격과 그 실천운동 자체에 대해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 봄이 옳을 듯하다. 상계 평론에서 그는 자신의 전향 이유를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그의 전향이유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 ① 지도적 비평가가 창작가에 대한 요구와 창작가의 부조화된 실행에서 생기는, 즉 지도부와 작가의 이반.
- ② 그러므로, 창작가의 진실한 길은 편협한 협토에서 진실한 문학의 길로 구출할 것, 즉 진실한 의미에서 프로문학은 부르조아 문학의 밑을 만반 계승자가 될 것.
- ③ 이것을 실행함에는 이론적 동결상태에서 창작을 정서적 은실속으로 갱생시킬 것.
- ④ 그러자면, 지금까지 등한히 생각되었던 기술 문제에 급하여 예술적 본분을 다 해야 할 것.
- ⑤ 또한, 계급적 사회생활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인간의 제반 활동과 그 생활의 복잡성을 자유로 광대한 영역에서 관찰할 것.
- ⑥ 집단 의식에만 얽매이던 것을 양기하고, 집단과 개인의 원활한 관계에서 오히려 개인의 특성과 그 본성에 정확한 관찰을 할 것.
- ⑦ 정치와 예술과의 기계적 연락관념의 분쇄.
- ⑧ 따라서, 카프의 재인식<sup>15)</sup>

그의 주장을 빌면, 문학사와 사회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프 비평가들은 이를 혼동했기 때문에 이론적 지도와 창작의 실제 사이에는 커다란 갭을 형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모든 창작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프로문학은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종합적 인식 능력을 잃고, 예술적 형상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카프의 존재이유는 없어졌으므로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향론의 이면에는 소장극좌파의 분세비키화 이론에 대한 쾨카프파, 즉 파스큐라 계열의 자유주의가 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申唯仁, 白鐵, 安漢 등 전향층 비평

15) Ibid., 1934. 1. 10.

가들의 견해를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전향 결정이 단순히 한 개인의 임의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프로 문학운동에 참여했던 여러 비평가들의 공통적 관심사와 직결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기의 비평계 동향을 살펴보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을 지지하는 카프의 지도 이론에 대해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비평가들이 처음부터 신랄한 비판을 가해 왔다. 梁任東과 廉想涉이 그 대표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카프 진영 내부에서도 새로운 반성이 일기 시작했다. 신유인의 평론 〈문학창작의 고정화에 항하여〉(《중앙일보》 1931. 12. 1~9)는 그러한 자기반성의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는 이 글에서 “문학은 비상히 광범한 그리고 복잡한 자연과 사회의 일체의 모든 현상을 인식하고 천당하면서 풍부한 예술적 제 장르를 창작”<sup>16)</sup>하는 것이라 전개한 다음, 과거의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은 세계에 대한 문학의 총체적 인식능력이나 그 영역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우리들의 문학은 무한히 전개되어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계급의 인간의 일상생활을 위효하여 일어나며 있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자유로 광범하게 형상하여 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분노하고 투쟁할 뿐만은 아니다. 프로문학은 웃고, 슬고, 슬퍼하고, 오뇌하고, 그리고 연애할 수 있으며, 또 창공에 빛나는 월색과 유유히 흐르는 하천의 물결을 노래할 수 있고, 봄날의 발 위에서 우는 종달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다.<sup>17)</sup>

한편, 백철은 〈인간 묘사 시대〉(《조선일보》 1933. 8. 29~9. 1)에서 프로문학의 한계를 행동적 휴머니즘으로 극복하고자 했고, 안막은 〈창작방법 문제의 개토의를 위하여〉(《동아일보》 1933. 11. 29~12. 7)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을 도입하여 쇠퇴기의 프로 문학운동을 구제하고자 했다. 이상과 같은 움직임들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아니고 내부에서의 자기반성이라는 점에서 카프 지도부를 더욱 깊게 자극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문단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회월의 전향론은 프로문학권 전체에 충격적인 파문을 던진 것이 사실이다.

회월의 전향론에 대해 최초의 반론을 던진 것은 김기진이였다. 그는 〈문예시평—박군은 무엇을 말했나〉(《동아일보》 1934. 1. 27~31)에서 “제재의 고정화, 작품의 유형화, 창작의 단식화……이같은 실패의 요인이, 책임의 장본인이 이

16) 신유인, 〈문학창작의 고정화에 항하여〉(《중앙일보》 1931. 12.)

17) Ibid.

테올로기라는 괴물이었던가? 이 괴물이 ‘예술 자신을 상실’하게 한 난폭한 교란자였던가? 끄는 전부 이 교란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교란자를 구축하여 벌리벌리 방송하는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 시기에 적당한 조처일까?”<sup>18)</sup>고 반문하고, 그 책임은 “이테올로기를 예술적으로 소화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과거의 작가와 비평가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이테올로지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sup>19)</sup> 그리고, 극도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조직을 이탈한다는 것은 “비상시 풍경의 하나”<sup>20)</sup>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비상시 풍경”이라 함은 일본 정부의 사상탄압에 의해 나프가 이미 해체되었고, 카프 또한 해체될 운명에 처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월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김기진은 파스쿠리계 문인으로서 자유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입화 등 소장극좌파와 합세하여 전향측의 논리를 무조건 배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나, 김기진 또한 자신의 체질을 무시할 수 없는 한 언젠가는 이테올로기의 중압에서 벗어나 “예술에의 복귀를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1930년의 그 수준을 내릴 수 없다는 그들과, 1930년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예술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나” 사이에는 아무런 타협점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카프 탈퇴는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테올로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이테올로기의 예술적 형상화를 방해하는 “카프의 그 조직을 공격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후기 카프 지도자들이 미학과 정치학의 영역을 혼동함으로써 그 지도 이론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종래의 이론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2) 카프 탈퇴 이후의 문학론

“예술은 무공의 전사를 할 뿐하였다. 다만 얻은 것은 이테올로지이며, 상실한 것은 예술 자신이었다”<sup>21)</sup>고 한다면, 여기서 그가 말하는 “예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만일 《백조》동인 시길의 유티주의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아닌가

18) 김기진, 〈문예시평〉(《동아일보》 1934. 1.)

19) Ibid.

20) Ibid.

21) 박영희, 〈최근문예이론의 신진개와 그 경향〉(《동아일보》 1934. 1.)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전향, 즉 무의미한 후퇴를 가리킨다. 아마도 그는 이 때문에 고심했던 것 같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카프의 지도 이론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그 예술론을 근원적으로 탐구하려는 열의를 보였는데, 이는 그의 전향이 소박한 심경 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러나 그가 당시 느끼고 있었던 문제의 심각성과는 관계없이 그의 전향론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초보적인 문학 이론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 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을 보면, 그는 “한 권의 정치교정, 한 조각의 신문보도에 의한 만용은 인제 버리자”는 신유인의 말을 빌어 “문학은 과학이 아니고 예술”이라는 명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예술”은 무엇이며, 《백조》시절의 유태주의 문학관과는 어떤 다른 차이점을 지니게 되는가. 여기에, 그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물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 <심미적 활동의 가치규정>《동아일보》1934. 4. 12~20)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플레하노프의 내용·형식론과 기오의 공감성 이론 등을 도입하고, 예술사회학적 관점에서 문학과 삶의 관련성을 구명하고자 했다. 이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가 이 글을 통해 밀하려는 기본 취지만은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술은 사회생활의 소박한 반영이 아니므로 예술 작품의 가치를 파악하려면 그 속에 담긴 사회적 현실이 미적 관념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내용과 형식, 즉 세계관과 방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플레하노프의 견해를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월은 이데올로기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데올로기가 가치있는 것이 되려면 그것이 예술적 형상화의 과정에 있어 어떤 기능을 다해야 하느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플레하노프의 견해를 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만일 그 필수조건이 결여되었다면, 만일 그 설교자가 자기 사상의 완전한 지배자가 되지 못하였다면, 만일 그의 사상이 그런데도 불명료하고 불철저하다면, 그 때의 사상성은 유해하게 예술 작품에 반영된다. 그 때의 그것은 그 가운데서 병정함

과 피로움과 권태를 가져온다. 그러나 죄는 이 경우에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것에 통효치 못한 예술가의 능력에……사상성의 부족에 있다.<sup>22)</sup>

플레하노프의 말을 빌리면, 입센은 “반항을 위한 반항”<sup>23)</sup>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애매모호한 것이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의 미학적 가치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즉, 입센의 약점은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성의 부족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회월이 카프의 지도 이론을 비판할 때 번번이 강조했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 “예술의 상실이라는 것은 카프의 그 조직을 공격하는 것”이며, “그 강령을 비판하는 것”이라든가, 카프가 “계급의식 제조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나 “이 제조장은 계급적 실사회며, 그 생활”<sup>24)</sup>이라고 했을 때, 이는 불세비키화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카프 지도부의 오류를 핵심적으로 짚은 것이라고 하겠다.

회월은 카프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인들에 대해서도 꼭같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기회있을 때마다 그는 예술과의 한계와 그 오류를 지적했으며, 자신은 어디까지나 역사주의적 토대 위에 서 있음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카프의 정치주의 문학관이나 예술과 문인들의 순수문학관을 막론하고 그것은 모두 세계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한 단면만을 강조함으로써 문학공간을 제한하고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문학은 더없이 편협하고 단순한 것이 되어 버린다. 다시 말하면, 소박한 감상주의에 떨어지고 만다. 회월이 항상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 이 감상주의적 성향일 것이다. <문학의 이론과 실제>는 오랫동안 우리 문학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장편 논문의 하나다.

이 논문은 해방후야 비로소 완성되어 조그만 책자로 발간될 수 있었으나, 1940년 《문장》지에 그 일부가 게재될 때 이미 그 윤곽과 논의의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저자는 이 글을 집필하게 된 근본 의도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

22) 박영희, <십미적 활동의 가치 규정>(《동아일보》1934. 4. 14)

23) Ibid.

24) 박영희, <문제 상이점의 재음미>(《동아일보》1934. 2.)

바 있다.

넬자는 유물론문학의 전기와 후기의 두 계단을 걸어왔고, 현금 다시 새로운 문학의 신계단에 입혀서 그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문학론을 이에 연구하고자 하는 비이다. 문학은 그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 구출되며, 그 가장 인간적인 점에서 재검토하며, 그 가장 자연한 성장에서 발견시키기 위해서, 우선 그 준비적 연구로서 이 논문은 초하는 것이다. 나의 본론의 기본은 유물론적 예술관의 재검토로부터 시작하려는 것이며, 그 기계화되고 공식화된 인간 문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광범한 세계에서 생기고 있는 인간은 찢으며, 따라서 그들의 문학을 엿보려는 것이다. 그리해서 문학의 가장 참된 길을 찾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당면한 과제를 가장 실질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sup>25)</sup>

여기서 전기라 함은 자연성장기의 프로문학을 가리키며, 후기라 함은 목적의식기의 프로문학을 가리킨다. 자연성장기에서 목적의식기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그는 프로문학운동의 지도자로서 군림했고, 사실상 카프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마도 이 시기가 그의 생애에 있어 가장 빛나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밖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놓고 본다면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문학론은 카프 탈퇴 이후부터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고, 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 문학의 방향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진가는 오히려 카프 탈퇴 이후의 비평활동에서 찾아야 옳을 듯하다.

이 글은 어떤 길으로 미루어 보아 자기비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프로문학운동의 한계와 그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문학의 가장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려는 데에 근본 목표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는 이 글을 끝맺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때까지 가치있는 문학적 작품을 창작하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찾아 보았으며, 견고한 이데올로기 틀에서 질식상태에 있는 인간을 다시 사리있는 인간으로 부활시키기에 노력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생기고 있는 인간, 감동력 있는 인간을 우리 앞에 세워놓을 수 있게 되었다. 개성이 있고 정서가 있고 창조력이 있으며 생각할 수 있는, 즉 영혼이 있는 인간을 찾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자기의 성격을 다른 사람의 그것과 분별하며, 월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슬픔에 눈물을 흘리 즐거움에 노래하며, 흠을 줄도 알게 되었다……(중략)……

25) 박영희, 《문학의 이론과 실제》(《文章》2권 2호, p.175.)

26) 박영희, 《문학의 이론과 실제》(1947), pp.110~112)

아름다운 문학, 건전한 문학, 유쾌한 문학, 일시적으로 흥분시키는 문학이 아니라 영구히 감동시키는 문학——이러한 문학이 좋은 문학이다. 분파적 덩탁, 계급적인 소아세계에 만족하려는 문학이 아니라, 인간적인 전체성에서 기대한 감동력을 가진, 영구히 아름다운 작품, 이것으로 우리는 창조력을 집중시킬 것이다. 이곳에 건전한 문학정신은 수립될 것이다.<sup>26)</sup>

주어진 과제를 어느 만큼 이론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나, 그런 진지한 태도를 보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름다운 문학, 건전한 문학, 유쾌한 문학, 일시적으로 흥분시키는 문학이 아니라 영구히 감동시키는 문학——이러한 문학이 좋은 문학”이라고 했을 때, 이 고백적 진술은 단순한 심경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문학적 성취와 탐구의 결과에서 얻은 맺가라 하겠다.

## 5. 결 론

1920년대의 한국 문단은 한 마디로 말해 감수성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하겠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니 “인생을 위한 예술”이니 하는 대립적 슬로건들은 이 시기의 분열상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백조》동인 출신의 유태주의자로서 최월은 자기 시대의 일반적 한계로 지적되는 이러한 분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했지만, 거기서도 또한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지 못했다.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상실한 것은 예술 자신”이라는 말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은 이데올로기의 중요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나머지 “예술”을 사상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카프를 탈퇴하고 계 3의 문학적 방향을 탐구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예술과 삶, 즉 세계관의 문제를 통합적 관점으로 극복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의 한 전형으로 우리 문학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의 논문〈문학의 이론과 실제〉는 이러한 그의 자기 성찰과 함께 한 시대의 문학적 고민과 갈등을 예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Abstract〉

## A Study on Park Yung-hee's critic working.

Kim Shi-tai

1920's literary world in Korea was in a stir, in a word, of the disintegration of sensibility. Such contradictory slogans, let's say, as "art for art's sake" or "art for life's sake" may suggest it. If Hoe Wol who was one of the aestheticians from the Baik Jo's associates had taken Marxism as his strategy against this disintegration—which was generally accepted as the limitation of his contemporary literature—it was even impossible for him to get any satisfiable answers from it. As clearly shown in the expression "what you've got is an ideology but what you've lost art itself", it is because the literary theory of Marxism emphasized only the importance of ideology and as this result, ended up in elimination of "art". It is here that he finally seceded from KAPF and started to search for the third direction in the world of literature.

In this respect he will be mark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s a type of literary person who had trie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his art, his life and his world's view in terms of a comprehensive thought but failed without any achievement. His thesis (the theory and practice of literature) is to be noticed as a work which foreshadowed an agony or conflict of a certain age of literary history as well as his self reflection on this subject.